

'혐오시설 옛말' 광주 소각장사업에 6곳 신청

개인 또는 단체 중심 관심 커...5개 자치구 신청 없어 주민 편익 1000억 포함 3240억 투입 2029년말 완공

광주시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6곳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혐오시설로 인식돼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의 대표적 대상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전 '우리집 앞마당으로' 유치하려는 필피(PIMFY)의 대상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폐기

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점을 고려,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지 선정을 위해 개인과 법인·단체, 5개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5시까지 유치신청서를 받았다.

접수 결과 모두 6곳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구 2곳, 동구 1곳, 남구 1곳, 북구 1곳, 광산구 1곳이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

인 곳은 5개 자치구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240억 원을 들여 6만6000㎡ 대지에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1일 처리량은 종량제 폐기물·음식물·재활용 잔재물·대형 폐기물 등 650t 규모다.

광주시는 여가공간을 함께 조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오염물질 최소화·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을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친화형시설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1000억 원대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소각장

가동 뒤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도 조성해 각종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오염 최소화 방안으로 ▲최적 연소를 통한 다이옥신 억제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3~4단계 처리 ▲공폭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한 오염물질 감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 위치는 주민대표와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 기본설계 공모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기본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공고했다.

건축설계 공모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작품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2전시장 부지에 입체적인 건축구상, 프로그램 간 효율적인 공유와 연계방안 구축 등을 위해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한 응모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게 된다.

시는 부족한 호남권 전시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제2전시장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가동률 70% 이상의 포화 상태로, 대규모 국제 마이스(MICE) 행사 유치를 위한 전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첫 알파벳을 딴 용어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뜻한다.

대지 위치는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1주차장 부지로, 면적은 1만8932㎡에 이른다. 연면적은 4만6000㎡·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전시 시설 9000㎡·회의 시설 2000㎡·업무·지원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등을 모두 더한 총사업비는 1461억원으로 추산된다.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25일 오전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참전유공자 등 내빈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 시동...전남, 내달 타당성 조사 착수

서남권 사회기반시설 신프로젝트 추진 추경예산 확보

전남도가 서남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추진 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총사업비 2조7900억원 규모의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초고속도로)'

요성과 시급성을 도의회에 적극 설명한 결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7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와 영암 F1 경기장까지 47km를 잇는 아우토반과 영암-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2.5km)는 용역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형 트램은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을 검토한 후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호 기자

첫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광주기독병원 선정

9월1일부터 평일·휴일 24시까지 소아경증환자 진료

광주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광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오는 9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 협상을 지난 22일 마무리하고, 사업자로 광주기독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조건 충족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기독병원은 9월1일부터 평일과 휴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환자를 진료하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기독병원에 운영비·홍보비 등 경상적 보조비용으로 시비 28억80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기독병원은 나머지 경상적 사업비 5억3000여만 원과 발생하는 자본적 경비 전액을 자체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강기정 시장의 '손에 잡히는 변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병원 오픈런 진료대란,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등의 위기를 맞은 소아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추진했다.

이번 광주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선정으로 지역 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최소화하고 소아경증환자 분산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전남, 귀농어귀촌인 10년 연속 4만명대

다양한 지원효과·청년 56% 차지

전남지역 귀농어귀촌 인구가 10년 연속 4만명을 웃돌고 청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대도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 증가 등으로 지난해 지역 귀농·귀촌 인구가 4만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4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남 귀농인은 1966가구 2523명, 귀어인은 297가구 388명, 귀촌인은 2만9864가구 3만7543명으로 총 3만2127가구 4만454명이 전남으로 유입됐다.

이로써 전남 귀농어귀촌 인구는 2013년 통계청 발표 이래 10년 연속 4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연령별로 전남지역 귀농어귀촌 가구 중 40대 이하는 2만247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많은 이유는 농어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전남도의 영농어 정착지원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남도는 2016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감소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 예비 귀농어귀촌인 유치를 위해 전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운영하고,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호 기자

"제2요양병원 운영 신청 의료법인 1곳 요건 적격"

광주시는 시립 제2요양병원 민간 위탁 수탁기관 모집 절차에 응한 광주 모 의료법인에 대한 선정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적격' 판단이 곧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제2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전남대학교병원이 '요양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 나섰다.

지난 5월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신청서류를 접수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이 같은 경우 재공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재공고 기간을 뒀지만, 운영 의사를 밝힌 더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은 없었다.

/조선주 기자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K-Health 국민의료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하나, 광주 병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투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앱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광주광역시 | 광주테크노파크